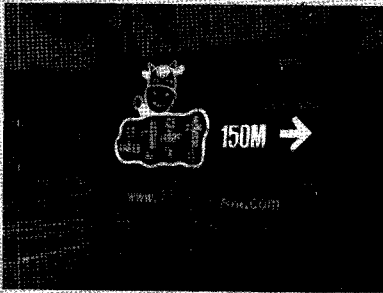


# 도시화로 터전 잃은 낙농가

취재 및 정리: 안 희 경 (농수축산신문 기자)



모산목장 현판. 도입부의 나무 현판이 즐겁게 방문객을 맞이한다.

상전벽해(桑田碧海). 뽕나무 밭이 변해 푸른 바다가 된 것은 아니지만 논, 밭만 즐비하던 시골 땅에 하루 아침에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공단이 들어선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통의 발달로 경기도 근교는 서울과 출퇴근 생활권이 된지 오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시화의 물결은 점점 농촌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도시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산업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축산업은 최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축산업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살아온 축산인들에게는 보상금 보다 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우선되기 때문이다.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도시화가 가장 가속화되고 있는 경기도 일대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낙농업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공단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 터전을 잃고 있는 낙농가들이 한해에만 몇십 농가가 된다는 것이 업계의 증언이다. 도시화로 인한 목장 이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성공적인 이전을 한 농가의 성공요건을 낱알이 분석한다.

## 도시화로 터전 잃은 낙농가들

화성지역, 폐업농가 중 이전 성공목장 2~3% 불과해

도시화로 인한 목장 이전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날만의 얘기는 아니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의 경우, 한해 폐업농가의 90% 이상이 도시화를 폐업 이유로 꼽을 정도로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전국에서 낙농가 수가 손에 꼽힐 정도로 선두를 달리던 화성은 10년 전 1,000여 농가에 달하던 낙농가수가 10년 사이 430여 농가로 60% 이상 줄어든 상황이다.

화성의 한 낙농가는 “화성은 전국에서 낙농가수가 가장 많던 낙농 일번지였다”며, “그러나 공단이 들어서고 동탄 등 신도시가 계속적으로 개발되면서 많은 낙농가들이 터전을 잃은 상태다”고 말했다.

문제는 폐업 이후 낙농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려고 해도 목장을 이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화성 지역에서 폐업한 농가 중 목장 이전에 성공한 농가는 2~3농가에 불과하다는 것이 화성지역 낙농가들의 말이다. 실제로 화성과 수원외의 경계에 위치한 태안읍의 경우, 도시 개발로 인해 50여 낙농가가 폐업을 했고 그 중 3농가만이 화성 변두리로 목장을 이전했다. 그러나 이 농가들마저도 목장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시화로 인한 문제는 경기도 지역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고속철도 등이 들어서면서 서울과 일일생활권이 되버린 충남권에서도 도시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연기군에도 7농가 정도가 최근 목장을 이전했다.

도시개발로 목장지가 수용될 처지인 천안의 한 농가는 “도시화로 인한 목장이전 문제는 비단 나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며 “지금까지는 경기도에 이어 충청지역까지 퍼지고 있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도시화로 타격을 잃는 낙농가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산목장은 들어가는 문부터 동화속 목장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체험을 온 유치원생들이 체험관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

## 민원이 가장 걸림돌

그렇다면 이들 목장들이 이전을 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 목장이전을 결심하거나 진행 중인 낙농가들은 입을 모아 ‘민원’이 가장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있다. 적당한 후보지를 물색하더라도 낙농 목장이 들어온다는 소문만 돌아도 주민들의 원성이 쏟아진다는 것이다.

목장 이전을 앞두고 있는 경기지역의 한 농가는 “목장 이전 후보지를 결정해 측사까지 지은 상태인데 주변 민원이 너무 심해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목장 정상화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돈 문제를 떠나서 이전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낙농업을 영위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쌓아온 관계 등이 한번에 날아가고 전혀 새로운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지만 낯선 이웃, 그것도 축산업을 하는 이웃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것이다. 최근 목장을 이전한 전라도 지역의 한 농가는 “평생 살아온 고향을 버리고 가는 것도 두려움이 크지만, 새로운 지역에서 발생할 각종 민원 때문에 바람잘 날이 없다”며, “목장을 이전한 지 1년 정도 됐지만 지역주민과의 잡음은 여전하다”고 말한다.



깨끗한 우유 저장조



목장의 작은 조형물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아기자기한 모습이 재미있다.

## 성공적인 목장 이전, 모산목장을 찾아

모산목장, 40년 터전 버리고 도시화로 이전

40여 년 이상 낙농업을 영위하면서 천직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도시화로 인한 목장이전은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었다.

“파주시 교하면에서 젖소 80마리를 키우고 있었죠. 돼지와 비육소도 조금 키우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1톤 600정도를 납유했으니까 아주 작은 규모는 아니었죠.”

모산목장의 안주인인 김금산 씨는 파주에 점점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예상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생 살아온 터전을 잃는다는 것이 너무 무서웠다고 말하고 있다.

“시집 올 때는 목장이라고 하기에 아주 큰 목장을 생각했었습니다. 막상 와보니 생각한 것과는 달랐지만 애들을 낳고 키우고 또 손주를 보고, 평생 살아온 목장에 정이 들어 있었죠.”

그러나 감상에 젖을 시간도 없었다. 당시 모산목장이 속해있던 파주시 교하면 일대는 정부의 택지개발로 목장 이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당시에 수용을 당하면서 목장을 내줘야 하는 농가들이 20여 농가 정도 됐습니다. 그중 6농가가 폐업을 했고 나머지 농가들은 포천, 연천 등지로 뿔뿔히 흩어졌죠.”

그리고 모산목장도 이전을 결정해야 했다.

### 깨끗하고 아름다운 목장, 민원을 해결하다

모산목장은 목장 이전 후보지역을 고심하다가 몇 년 째 고민해 왔던 체험목장을 생각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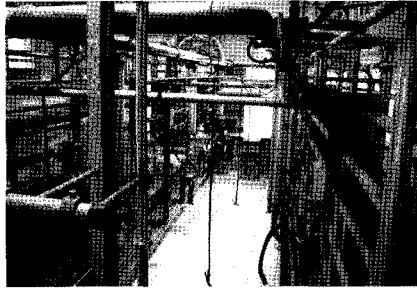
“이왕 목장을 이전해야 한다면 평생 꿈꿔왔던 체험목장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접근이 용이하면서도 바깥양반이 일을 보기 쉽고 아이들도 왔다갔다 하기 좋은 지역을 생각했죠. 그리고 지금의 목장자리로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체험목장을 한다고 해도 착유소 마릿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납유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민원문제 해결이 쉽지만은 안았을 터. 과연 그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현재 정착한 목장지는 사실 한우를 키우던 농장자리였습니다. 전에 있던 농가

에 비해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목장을 가꾸는 것이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싫어하는 목장이 아니라 좋아하는 목장이 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 체험목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기자기한 건물과 조경, 아름다운 환경 조성이 우선시 됐고 목장보다는 예쁜 테마파크가 하나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목장 이전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목장을 이전하면서 바꾼 착유 시설.

“물론 우리는 납유를 하는 낙농가입니다. 지금도 80마리의 착유소에 1,200kg 정도를 매일 납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목장은 원래 냄새가 난다’, ‘목장은 원래 더럽다’가 아니라, ‘예쁘고 깨끗한 모산목장이라면 우리 동네에 있는 게 더 좋다’는 식으로 주민들의 생각을 바꿔나갔죠.”

### 목장이전을 꿈의 터전조성으로

낮선 이웃, 낯선 지역. 터전을 잃었다는 슬픔보다는 꿈에 꿈을 더한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목장 조성에 매진한 모산목장.

모산목장 대표 부부는 40년 노하우가 만들어낸 목장을 만들어내기로 했다. 목장을 이전하면서 그간 생각해 온 편리한 시스템과 쾌적한 낙농환경을 만들기로 한 것.

“토목공사 단계부터 꾸준히 참여했죠. 그간 낙농을 해오면서 생각해 온 부분들을 모두 반영해서 체계적인 시설을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도 편하고 소도 편한 목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착유시설도 기존 파이프라인에서 헤링본으로 바꾸고 착유 시스템도 전면 개선했다.

“이왕하는 목장, 제대로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을 하면서 우리는 낙담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체험목장 시설들을 만들고 축사를 짓고, 이렇게 들어간 돈이 10억원이 넘는다.

“물론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만둘까 왜 생각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낙농은 평생 우리 부부의 업이었고 앞으로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희망의 산업입니다. 목장 이전을 통해 터전을 잃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꿈의 터전을 일군다는 생각으로 노력한다면 분명 새로운 희망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산목장 대표 부부는 목장을 물려받을 아들을 위해 더 큰 목장지로 이전을 꿈꾸고 있다.

“착유도 많이 하고 체험목장도 더 넓은 곳에서 꾸려 나가보고 싶습니다. 꿈꾸는 자에게 도전은 어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이니까요.”